



01. 목회권면

하계산상성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힘입어 예배에 힘쓰며 기도과 말씀의 날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02. 9월 특별새벽집회

9월 특별새벽집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일시: 9.1(목) - 3(토) · 주제: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신 30:15 - 20)
- 강사: 김삼환 목사 · 집회시간: 1부 오전 5:50, 2부 오전 7시, 3부 오전 8:30
- 예비 특별새벽집회가 8.30(화) - 31(수)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 특별새벽집회 기간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 9월 특별새벽집회는 1-3부까지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유튜브 시청

· 유튜브 명성교회: <https://www.youtube.com/onlylord>

TV 시청(C채널)

- 생중계: 1부 오전 5:50
- IPTV: 올레KT(235번), SK브로드밴드(304번), LG유플러스(272번)
- 케이블: 강동·송파·광진구 딜라이브(305번)

03. 알 림

① 김하나 목사님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와 2020년 제499차 당회에서 명성교회가 104회 총회 결의 및 총회 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님을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진하는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일시: 8월 21일(오늘) 주일찬양예배 후
- 장소: 예루살렘성전 본당
- 대상: 18세 이상 세례·입교인
- 공동의회를 위해 8월 21일(오늘) 주일찬양예배는 바코드 교적 확인된 분에 한하여 예루살렘성전 본당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예루살렘성전 지하 1층 임마누엘실과 호산나실에서 예배드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가 한마음으로 서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사랑과 돌봄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 성도들의 성숙함과 하나 됨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경건하고 성숙하게 공동의회에 참여하셔서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아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폭우 피해 이웃 및 교회 돕기 성금
하나은행 561-910004-75904(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명성교회)

③ 필리핀 마닐라한국아카데미에서 행정교사와 생활관 사감을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8.31(수)까지 · 문의: 해외선교부 ☎ 02-6930-9500

금주 신생아

명성교회 출생 신생아(2022년 1월 - 현재)

2명

총 96명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쇠가 쇠를 단련하듯이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마치 철이 철을 깎아내듯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 날이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 나와 성향이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용납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날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도구들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칭찬을 통해 좋은 것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단련한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제거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조금만 잘하면 칭찬하시며 선한 것을 끌어내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디서든지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은 하나님이 보내신 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에서 함께한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배우고 부대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잘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쇠로 여기어 날카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날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날카롭게 된다'라는 말은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무뎠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날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날을 세워주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안주훈 최운배

교육목사
권오병 김은혜
이승갑

목사

김남수 김다림 김동민 김동진 김득열 김병규
 김봉기 김석호 김선우 김요한 김우종 김윤희
 김은영 김은자 김준곤 김준환 김준희 김희영
 류현웅 문명석 문승진 박영호 박요한 박현규
 방유경 백재용 서찬성 손원재 손지목 송한슬
 신경민 신동신 신충현 여주형 우종협 유태규
 윤석진 이경민 이대선 이덕기 이서구 이정수
 이지명 임용섭 임은목 임지환 장중민 정구일
 정홍배 조성민 조계영 천해림 최대열 최에녹
 한바울 한정민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전도사

권예찬 권혁현 김경환 김동욱 김민음 박경애
 박고운 박근우 박보하 박우진 신재희 오대용
 이경환 이상인 이 성 이울관 이은세 이재민
 이주현 임기도 정구현 편경호

교육전도사

김석현 김승택 김용문 김웅기 김윤영 김준영
 문태은 박경민 박재현 박초롱 손찬영 송영호
 이성현 이준민 이준식 최하경

디아스포라

박경희(태국) 박종근(중국)

오직주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